

빨치산 총 앞에 '부역자' 되고...경찰 총 앞에 '반동' 됐다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연 공개...광주·전남 5건 들여다보니

빨치산에 음식 줬다고 좌익 몰려... '남편이 경찰' 만삭 아내 총살 빨치산 부역 자수한 일가족 몰살 당하고...예배 보던 20명 매장

한국전쟁 전후 광주·전남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좌익세력에게 일가족이 몰살되기도 했고, 빨치산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제공했다가 좌익세력으로 몰려 군경에게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 '별이 되어 빛나는 진실을 전합니다'의 제목으로 민간인희생 특별페이지를 오픈했다.

특별페이지에는 1·2기 진화위가 진실로 규명한 주요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의 5건 등 총 37건의 사건으로 구성됐다.

지난 1949년 7월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대산리 대야마을에서 면장과 이장을 하던 김씨 형제가 빨치산에게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단숨에 달려(광산군 삼도면) 대산출장소 경찰이 주민 중 장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대산출장소로 끌고 갔다.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난 8월 21일이 되어서 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숨진 후였다.

30대 농부이자 가장인 장모씨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와 밥을 해내라, 닭을 잡아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식량 제공을 거부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빨치산이나 경찰이나 누구든 총을 들이대는 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주민들은 빨치산의 총 앞에서 부역자가 되고, 경찰의 총 앞에서 반동이 됐다.

1951년 5월 31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빨치산을 색출한다며 양동리 북마마을에 진입해 마을 사람들을 집결시켰다.

경찰은 주민 박모씨를 포함한 몇 명을 뽑아내서 몽둥이로 구타하고 코에 물을 부으며 '빨치산이 어디 있느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박씨는 고문을 견디기 힘들어 이를 면하려고 거짓말로 빨치산 위치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박씨를 끌고 가 확인해보니 말한 것과 달리 빨치산이 없자 박씨를 살해했다.

1950년 10월 4일 오후 신안군 임자면 진리교회 장로 이모씨의 집에서 예배가 열렸다. 그날 모인 사람은 모두 20명으로 이씨 가족 12명과 일반 신자 8명이 모였다.

좌익들은 예배를 보던 이씨의 가족들을 포승줄에 묶어 대가리 백산들로 끌려갔다. 이씨 가족은 죽창

등으로 살해당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당했다.

친구 집에 가 있어 가족 한명이 길에서 울고있는 것을 발견한 좌익들은 몽둥이로 구타해 살해한 후 갯벌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진리교회 사건의 희생자는 진리교회 신자 48명과 증언 함께 신자의 가족들까지 총 64명이다.

영암 학계리의 배모(여)씨는 남편 현모씨가 영암 경찰이라는 이유로 1950년 10월 2일 지방좌익들에 의해 학살된 학계리 광암마을 제정골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당시 배씨는 만삭이었다.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에 살았던 정모씨는 어머니와 고모,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남동생 개똥이(3·4세), 할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었다. 당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광주에 피난을 가고 없었다.

경찰이 도벌 작전을 한다고 민간인을 계속 죽이니까 모악리 주민 대부분이 산으로 피신했는데 가족들도 뒤늦게 따라 산에 올라갔다. 닷새 후 산에서 내려와 모랑면 심학리 증조할머니 덕으로 피난을 갔다.

피난 온 지 하루 만에 증조할머니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며 자수하라고 해서 어머니, 고모, 할아버지가 모랑리에서 가서 자수했다.

이튿날 경찰이 개똥이를 때놓고 어른들만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며 데리고 나가는데 개똥이가 하도 우니까 경찰이 "이놈 아깝다" 하면서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경찰에 의해 민간인 19명과 함께 쌍운리 쌀고개(일명 움파골)로 끌려간 구덩이에 들어가서 집단 살해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구야, 꽃길만 걷자 4일 화순군 화순읍 화순제일중학교에서 졸업생이 친구, 부모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 '박차'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4일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박람회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했다.

도 교육청은 여수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교육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예

5월 29일~6월 2일 여수서 개최

25개국 참여 국제교육관 등 구성 '글로벌 미래교실' 등 소개 예정

테크밸리, 2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교육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글로벌 미래교육 콘퍼런스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인공지능(AI)과 학교 교육, 다문화사회의 체계시민 등을 주제로 선보인다.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의 저자인 폴킴 스탠퍼드대학 교육대학원부학장의 기조 강연이 확정됐으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와 '미래

와의 대화' 저자인 토마스 프레이 교수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내셔널 지오그래피, LG 등 글로벌기업은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래교육 수업 공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미래교실도 눈길을 끈다.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미래교실은 초중고 1학년씩 총 3학급 수업이 5일간 열린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박람회 개막은 5월이지만, 1월부터 본 행사가 시작됐다는 의지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글로벌 교육을 학생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박람회가 막을 내린 후에도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시민모임) 오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

대하고 나섰다.

4일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는 외교 수장을 맡을 사람이 아닌 사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후 승소 소식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만든 비극적 사태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과정 전반을 의논했다는 것이다. /김다인 기자 kdi@

"갑질 일삼는 간부 공무원 증징계하라"

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 성명

광주시 남구의 간부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A과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증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과장이 계장급 직원 3분의 1의 비상근무를 강요했으며,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가를 쓰게했다. 휴일에 수시로 직원들에게 전화해 1시간 30분까지 업무 지체와 화풀이를 했다"며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욕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심지어 직원들에게 제설작업을 시키고 본인은 사우나에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또 노조는 "해당과 직원들과 A과장을 분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남구청장은 갑질을 자유롭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됐는지,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 갑질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과장은 "대체휴무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당시 업무는 8시간을 넘지 않았고 사우나를 갔다는 목격담이 제기된 당일 새벽 5시 50분께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청으로 출근한 기록과 출근시간(오전 7시)보다 일찍 구청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남구 감사실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